

# FDI총회에 다녀와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처

대리 박재봉

본 내용은 올해 9월 8일부터 14일까지 Singapore Raffles City Convention Centre에서 개최되었던 제78차 FDI총회에 치협 사무처의 한 직원으로 참가한 바 있는 학술부의 박재봉 대리가 4박 5일동안 보고 느낀것을 기행문 형식을 빌어 작성한 것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편집부>

치과계와 인연을 맺은 이후 3년 7개월이 흘렀다.

임상분야에는 문외한이지만 치협 사무처에서 국제업무로 주로 담당해 왔던 나로서는 사뭇 긴장감이 일 수 밖에 없었다. 난생 처음 해외출장을 하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해 4월, 1주일간에 걸쳐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되었던 “제14차 아시아태평양 치과회의”에 대한 각종 행사 및 등록준비를 담당하면서 국제회의에 대한 감을 조금은 맛보았지만,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계회의에 직접 참석한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더 한층 큰 경험이 된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입사이후 4번째 맞이한 FDI총회에 매년 대표단을 파견하는 업무를 맡아오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통해 직접 싱가포르를 향할 수 있게 되는데 대하여 치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서는 물론 사무처의 전 직원에게도 감사사를 드린다.

치협에서 지정한 S여행사를 통해 김포공항에 출국수속을 하기로 한 사람은 동부인을 포함하여 총 32명이었지만, 1명만이 불참

한 가운데 수속을 마쳤다.

1일째...

『ONE PEOPLE, ONE NATION, ONE SINGAPORE』

9월 8일 오후 4시를 출발예정인 한 서울발 UA827편은 20여분을 지체한 후에야 이륙하였다. 타이페이에서 재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동안 1시간 30분정도의 휴식시간이 있다고 들었던것만 겨우 30여분만을 허용했기에 현지의 면세점을 이용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들 했다.

싱가폴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10분이었다. 우리나라보다 1시간 빠른 점을 감안한다해도 오랜시간이 연체된 것이었다.

싱가폴 관광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창이국제공항에 대한 한결같은 감탄사를 많이 들었지만 밤에 도착하여 그 전경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싱가폴 입국수속중 눈에 띄는 것은 아마도 올해가 싱가포르의 해인지-동남아시아에서는 각국이 돌아가면서 기념 해를 정한다고

한다—「One people, one Nation, One Singapore」라는 대형 프랑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는 중국계, 말레이계, 그리고 인도계 등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검역실 앞에는 FDI총회관계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문이 눈에 띄게 걸려 있어 반가운 마음 그지 없었다.

우리 일행의 짐을 다찾고 공항 밖으로 나오니 H여행사의 현지가이드가 반겨주었다.

예정상으로는 K사장이 관광안

내를 맡을 예정이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하여 미스 고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11시 40분 일행을 태운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팀을 이탈한 L을 찾기 위하여 또 다시 10분을 지체하였다. 호텔에 들어가서야 안 것이지만, 서울 S여행사에 항공권만을 의뢰한 L은 우리가 목을 호텔과는 달리 나름대로 다른 호텔에서 숙박코자 먼저 공항을 빠져나온 것이었다.

우측핸들이 있는 대형버스에 탑승한 일행은, 피곤에 떨어졌지

만 간략하면서 흥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미스고의 안내를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동남아 최고의 시설이 될 창이 국제공항은 현대건설팀이 공사중인 창이 제2국제공항을 오는 12월경 완공함으로써 그 위세를 떨치게 된다는 것과, 여러 책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참관기에서 알 수 있듯이 깨끗한 거리를 느낄 수 있었으며, 아울러 물과 공무원이 깨끗하다는 것을 미스고는 강조하였다.

20여분을 달린 후에야 팬퍼시



<일행이 머문 팬퍼시픽호텔(左)과 Korean Night이 개최된 마리나 만다린 호텔(右)>



<창이 국제공항>

픽 호텔로비에 일행은 몸을 낼 수 있었고, 그동안 S여행사 C직원이 2인 1실의 객실번호를 알려주었다.

3128호는 나와 C직원이 투숙할 방번호였다. 나쁜 몸을 풀고자 샤워를 하고 자리에 누우니 1시 30분이었다.

## 2일째...

'97년도 FDI총회 유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알리기 위하여 태극선부채를 사전에 준

비하고 Roll Call순서에 대비.

9월 9일 오전 7시 우리 일행이 투숙한 각 객실마다 C가 일일이 전화로 아침인사를 하였다. 나는 하루먼저 도착한 이기택 국제이사에게 전화를 돌렸다. 어제의 FDI총회 A는 잘 끝났지만, 하루먼저 도착한 윤홍렬 협회장(부부), 김일경 부회장(부부), 김종열 법제이사(부부)와 함께 각국 회원국 대표단들에게 배포할 책자와 부채를 봉투에 넣는 작업을 밤새하고 낮에 각 책상마다 그

봉투를 놓았다고 했다.

봉투안에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0여부를 협조받은 한국홍보용책자와 협회에서 준비한 자료 즉, 과거 10여년간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주요국제행사일람 1매와 협회장의 인사말 1매가 있었다.

이 자료를 통해 세계 각국의 많은 대표단들로부터 일명 코리아안나이트라고 불리는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추최 만찬에 적극적으로 참가의사를 받았다고 했다.

오전 9시 S여행사를 통한 센토

사섬 관광을 위해 일행을 배웅하고 국제이사와 같이 아시아심미학회 세미나가 개최되는 만다린 호텔로 갔다.

이 세미나에 참가키 위해 방문한 (가칭)대한 심미치과학회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회원 10여명을 만나서 개회식 참석을 요청하면서 부채 20여개를 전달했다.

또한 부산지부 자체내 대표단이 투숙하고 있는 아마라호텔로 가서는 카운터에 부채와 메모를 남겼다. 이후 FDI등록처인 Rafles City 컨벤션센터내 Stamford

호텔 4층으로 갔다. 등록처는 조 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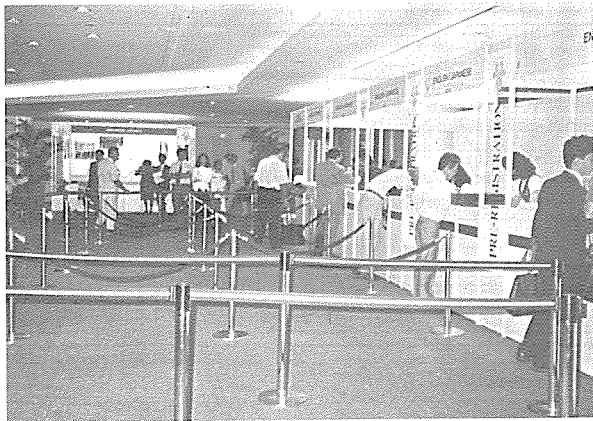
대회준비요원들의 복장은 통일이 되고 모든 서류는 컴퓨터로 전산화가 되어 일사불란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꼈다.

같은 팬퍼시픽호텔에 투숙한 20여명의 등록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90.5.15일 FDI본부에 등록을 신청한 5명의 등록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해간 치협 서류와 FDI본부에서 보내온 공문 및 영수증 사본을 제시했다. 20여분이 지난 후

FDI과견요원이 연맹 사무처에서의 실수를 인정하고 등록카드를 만들어 줌으로써 사전등록자의 등록누락은 없어졌다. 치과의사 및 동반자의 등록시 기념품은 가방 1개씩이었으며, 동반자에게는 79차 FDI총회 개최지인 이탈리아 치협에서 제공한 파라솔우산 1개가 주어졌다.

가방은 버틀러社에서 협찬한 것이지만 가방안에는 Made in Korea라는 표시가 뚜렷이했다.

오후 5시에 개회식이 있는 관 계로 센토사섬의 반나절 관광을



<등록처 모습>



<개회식에 앞서 Roll Call순서를 준비하고 있다>

때난 회원들이 등록 영수증을 제시하고 기념 가방등을 인수할 경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국제이사와 같이 20여명의 명찰과 가방을 인수하는 동안, 협회장과 김 부회장을 만났다.

협회장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나니 오전관광을 한 팀이 돌아왔다. 사전등록자들에게 모두 가방과 우산을 전달하였지만, 등록이 안된 동반자의 경우 FDI개회식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 일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더우기 아마라호텔에 투숙한

부산지부 30여명의 회원을 포함, 아시아심미학회에 참석한 10여명의 회원들은 FDI후원회비인 US\$25만을 냈을 뿐 거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FDI개회식에 참가할 수 있는지가 불안하였던 것이다.

부산팀들은 오후 3시에 팬퍼시픽호텔로비에서 우리 일행과 만났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부채 1개씩이 주어졌다. FDI개회식 순서중에 있는 Roll Call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FDI총회사상 많은 한국인이 참석하고, 또한 오는

'97년도 FDI총회 유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알리기 위하여 태극선부채를 사전에 준비한 것이다. 각국 대표단소개는 A, B, C순으로 진행되는데 「Korea」라는 말이 나오면 전원이 일어서서 태극선부채를 흔든후 주위의 외국인들에게 나누어 줄 예정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사항은 부인들의 경우 한복을 미리 준비하여 입고 나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회식장에서 눈에 가장 잘 띄게 하기 위해 무대 맨 앞에 자리를 잡고 앉기 위해 시간시간보다 1

시간 30분 먼저 도착하였던 것이다.

작년 서울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개최된 14차 APDC의 개최식 등은 FDI수준을 충분히 능가하였다고 자부하였던 우리는, 아마도 싱가포르에서도 외국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리라 기대하였다.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협회장과 국제이사들은 입구에서 그들과 대화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심미학회 세미나 참석차 온 10여명의 회원들은 개최식에 참석치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는 것이다.

더우기 개최식 순서에는 VIP로서 싱가포르 대통령이 참석하기 때문에 입장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었지만, 작년 우리의 경우는 개최식만은 무료입장을 해준 전례 내지 우리의 호의를 잊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섭섭한 마음이 일었다.

Indoor Stadium인 개최식장에 들어선 일행은 무대 맨 앞에 한복은 입은 부인들을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부채를 흔들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약 1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싱가포르 국립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었다. 몇개국의 민요는 우리네 귀에 익은 음악이 간혹 있었다.

정각 5시 약 8천여명이 기립한 가운데 VIP로서 싱가포르 대통령이 입장하자 참석자 전원은 박수로 맞이하였다.

무대는 간단했다. 차이나타운을 연상케 하는 건물을 뒤로 한



<민속춤의 공연모습>

채 단상 오른쪽에는 사회자가, 중앙에는 대통령을 위시하여 좌측에는 싱가포르 치협회장이, 우측에는 FDI회장 이렇게 3명만이 자리를 하였다.

싱가폴 치협회장의 환영사 이어 FDI회장의 축사, 그리고 싱가포르 대통령의 축사 및 개최 공식선언이 있는 직후 싱가포르 대통령은 자리를 떠났다.

이어 명예회원 및 공로패 증정 순서가 있었는데 미국인 두명과 프랑스인 1명, 그리고 학술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스리랑카인 1명이 대상이 되었다.

공식행사 다음 순서로서 싱가포르 국립무용단과 싱가포르 대학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싱가포르에는 중국계가 주종을 이루고 말레이계와 인도계 등의 민족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 민족계에 관한 공연등과 주로 동남아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것들로만 공연이 이루어졌다. 1시간 이상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일행은 과연 Roll Call이 언제 있을 것인가

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끝내 그 순서는 돌아오지 않은 채 개최식의 모든 행사는 막이 내렸다.

우리 일행의 모든 사람들은 왜 Roll Call순서가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FDI총회에 많이 참가하였다는 K회원은

“많은 대회를 참석해 보았지만 Roll Call순서가 생략된 대회는 한번도 보지 못했다. 역대대회중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참석하였고 보는데, 싱가포르이 2차대전에 대한 반일감정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100여명이 참석하여 '97년도의 FDI총회를 유치홍보하는데 그 일조를 담당키 위해 부채까지 준비해온 우리 일행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무척 아쉬웠던 개최식이었다. 작년 서울에서 열린 아·태회의와 비교하면 정말로 우리의 것은 훌륭한 것이었다고 다시한번 생각이 들었다.

**SELECT  
SEOUL  
for the  
1997 FDI  
CONGRESS**

행사가 끝나고 우리 일행을 태울 버스는 30여분이나 더 기다렸다. 많은 참석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최측이 신경을 좀 더 썼더라면 각자의 차량에 승차할 수 있었던 시간이 더 빨랐을 것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지적사항이라 생각되었다.

협회장을 위시한 10여명은 "Japan Night"에 참가키 위하여 한복을 입은 부인들과 함께 다른 차량으로 자리를 떠났다.

**3일째...**

일명 '코리아나이트'라고 불리는 주 싱가포르한국대사주최 리셉션, 마리나 만다린 호텔에서 성공리에 개최하고...

9월 10일 새벽부터 비가 제법 내렸다. 호텔내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일행과 9시에 로비에서 만났다.

부인들은 말레이시아로 만나질 관광을 위해 떠났고, 몇 명은 골프를 위하여 새벽일찍 길을 재촉했다기에 10여명만이 학술대회장으로 갔다. 12시 30분에 전시장이 개막되므로 기자재전시 참관은 오후로 미루었다.

법제이사의 도움으로 「Press」증을 발급받은 나는, 무법자(?) 행세를 하면서 가는곳마다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었다. 약 1,000여명이 앉을 수 있는 학술대회장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입구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지경이었고 등록처에는 장사진을 이루었다.

각 부스장을 돌아보던 중 "대한치재협회"라는 코너에는 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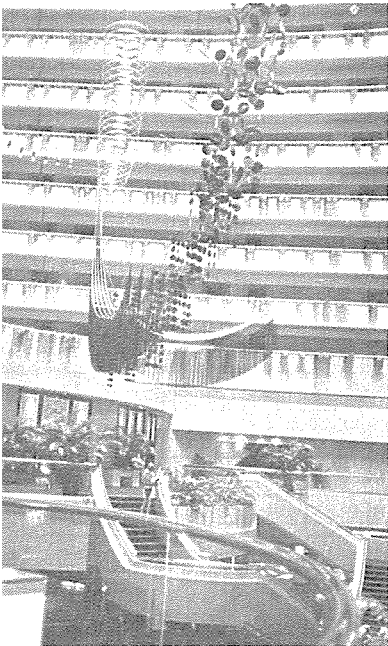
무역상사와 삼정치과산업사 그리고 (주)동명합금에서 전시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주)신흥에서도 한 코너를 준비하고 있었고, Oral-B코너에서 한국지사장과도 인사교환을 하였다. 학술대회장과 전시장을 돌아보았던 내게 있어 느낀점이 있었다면 각각 너무 여러곳으로 분산 개최되어 산만하고 불편했던 점이였다.

점심식사를 한국음식으로 가볍게 때운 일행은, 악어농장 등 관광 쇼핑을 위한 팀과 학술대회 및 전시장 관람팀으로 분산되었다.

오후 4시 호텔 로비에서 재결합한 일행은 6시부터 진행되는 한국대사 초청 리셉션에 참석할 팀과 자유시간을 가질 팀으로 또 다시 분리되었다.

일명 코리아나이트라고 불리는 주 싱가포르한국대사주최 리셉션은 마리나만다린호텔 5층에서 개최되었다. 6시 10분전부터 입장이 시작된 만찬은 8시가 넘어서까지도 많은 사람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협회장과 김부회장 그리고 국제이사들은 입구내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교환을 나누느라 분주했고, 곱게 한복으로 차려입은 부인들은 길목 곳곳에서 안내를 맡았으며, 10여명의 준비요원들은 여러가지 잔무를 자청하였다.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Select Seoul for the 1997 FDI Congress"라는 스티커를 가슴에 붙여주었으며, 명함 1장씩을 통안에 넣어줄 것을 요청하여 참석자 숫자와 함께 누가 참석하였는지를



〈Korean Night가 개최된  
마리나 만다린 호텔〉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명함을 가져오지 않아 당황한 몇 명의 외국인에게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준비요원의 말에 입구부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6시 10분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이사의 개회사와 협회장의 간략한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주 싱가포르 김세택 한국대사가 차분한 어조로 인사를 하였다. 즉 앞으로 5년 이내에 남·북한 통일을 확신하는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97년 FDI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할 것이며, 14th APDC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저력을 세계 내외에 과시해 보이겠다는 유우머와 의지가 섞인 내용이였다. 우리와 같은 박수후에 등장한 FDI회장의 축사는 또다시 장내를 박수바다로 만들었다.

세계각국의 치협회장과 여러가지 국제단체들 특히 FDI사무총장은 한국을 전폭 지지할 것이라고 공언했음은 물론 아태연맹 사무총장도 이미 한국에게로 '97년 FDI총회유치가 기뻐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였다.

예상한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참가자들은 시종 웃음을 잃지 않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의 밤'은 대성공이었다. 아니 그렇다고들 했다.

이는 9월 8일에 있던 총회 A에서 배포된 한국홍보책자 등의 자료가 주요한 타도 있었겠지만, 협회장등의 로비활동에 인상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이 되었다.

윤흥렬 협회장(부부), 김일경 부회장(부부), 이기택 국제이사, 김종열 법제이사(부부), 정재규 군무이사(부부), 김화규 자재이



<바탐섬으로 관광을 나선 대표단 일행>

사(부부), 양정강, 명노철, 한병소, 김석중, 강홍구, 이승우, 박인숙 회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김세택 대사의 정참사관과 대사관요원 두명의 아가씨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었다.

4일째...

바탐섬에는 주유소와 경찰서가 1군데 밖에 없었고, 싱가포르의 2/3의 크기

9월 11일 화요일. 오늘은 나도 관광을 할 수 있는 날이다. 7시 30분에 일행을 태운 버스는 인도네시아의 바탐섬 관광을 하기 위해 터미널로 떠났다.

일행 중 두 회원은 학술대회장과 전시장을 둘러본다고 하여 일행에 합류하지 않았지만, 배가 출발하기 직전 1명이 모자라는 것을 확인하곤 미처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K회원을 S여행사 C직원 이 부랴 부랴 호텔로 다시가서 일행에 포함시켰다.

인도네시아 바탐섬에는 물이

귀할 것 같아 미리 생수를 준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배에서 본 싱가포르의 도시는 마치 빌딩숲과도 같았다. 사자의 도시라고 불리웠던 싱가포르라는 한 쪽의 그림이요 빌딩숲과도 같았다. 버스나 택시는 폐차 직전이었고, 거리도 지저분 하였다.

버스에 올라서자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싱가포르 안내원인 미스 구가 받아 통역을 하기 시작했다.

싱가폴 거주자인 미스 구가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인도네시아인의 영어는 억양이 이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바탐섬에는 주유소와 경찰서가 1군데 밖에 없었고, 싱가포르의 2/3크기인 바탐섬에는 싱가포르에서 6년간 사용한 택시를 수입한다고 한다.

치과의사의 월급이 얼마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상불 200(약 15만원)정도라 하니 인도네시아의 물가수준을 어느정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2~3명의 부인들과도 살 수

있다는 안내원의 설명이 있던 직후 여기에 남아 있겠다는 사람이 있어 웃음을 자아내었다.

바탐섬내에 유일한 특급호텔 안쪽에 있는 수영장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처음으로 단체기념촬영을 한 이후 호텔내 수영장과 해변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었다. 약 30여분을 버스로 달린 후에 해변근처의 한 음식점에 들러 인도네시아 전통의 음식을 음미할 수 있었다.

음식점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는 대신에 흐르는 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화장실에서 불일을 끝내고는 왼손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식사는 수저없이 오른손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화장실을 일명 가라오케라고 하는데 이는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움을 만끽한다는 이유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각설하고, 배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터미널로 향했다. 더운 날씨인데다가 식사를 하고난 직후인지라 전부들 잠에 취해 버렸다.

배를 타고 싱가포르 재입국한 시간이 오후 3시 30분, 쇼핑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현지 가이드가 지정해 준 면세점에서 현지 가이드의 20%할인 티켓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선물-비록 싼 값이지만-을 고른 내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쇼핑을 끝내고 호텔로 돌아와 보니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서울에 물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88올림픽대교가 물에 잠겨 통행이 금지되었고 한강물이 넘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모두가 집으로,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과연 내일 서울의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모두들 불안해 했다.

오후 7시 '한국성'이라는 음식점에서 싱가포르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끝내자마자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다.

호텔로 찾아온 협회장과 김일경 부회장이 투숙한 사람들을 찾아 일일이 인사를 하였다.

5일째...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4박 5일동안의 일정을 정리

9월 12일 새벽 4시 30분 호텔 카운터에 모인 A코스팀 14명은 협회장과 법제이사의 전송을 받으면서 공항을 향했다. 4시간의 비행후 대만에서 1시간 30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불안했다. 서울의 홍수때문인 것이다. 제일 눈에 아른거리는 것은 이제 갓 16개월이 된 딸의 얼굴이었다. 2시간 여의 비행에서 4박 5일의 일정을 정리했다.

비교적 짧은 일정이었지만 보람있는 여행이었다.

해외출장을 목적으로 한 나는, FDI총회에 대한 각종 행사등을 아태회의와 비교해 보면서 좀더 시각이 커짐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83년 일본에서 개최된 FDI총회에 최동철 학술부장이 출장을 다녀온 이후 사무처에서는 내가 두번째 해외출장 경험이 있는 것이다.

아직 다녀오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홍수를 피해 외유한 것등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올해를 시발로 치협사무처의 국제화를 꾀할 것을 감히 요청드리면서 싱가포르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일행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CHOI'S DENTAL LAB

崔鍾煥 치과기공소

서울 · 종로구 송인동 1081  
923-6671 · 923-2998